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가 행해질 때는 모두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인위적인 덕 따위는 쓸 곳이 없습니다. 인(仁)과 의(義)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의(仁義)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닙니다. 물오리의 깎은 다리를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듯이 인(仁)과 의(義)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 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義]을 쌓아야 한다.
- ②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 끗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암[知]과 실천[行]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뎌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한쪽 발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을: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암과 실천에 대한 옛사람의 말은 모두 암 또는 실천 중 어느 한쪽의 공부에 치우침을 보충하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공부로 분명하게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 ① 갑: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② 갑: 암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되 선후와 경중(輕重)은 가려야 한다.
- ③ 을: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理]를 부모에게서 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본성[天理]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可視的)이지만 가지적(可知的) 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을: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至福)이 놓여 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① 갑: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 ② 갑: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 ③ 을: 자기 보존 욕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 ④ 을: 자연은 무한한 실체이고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⑤ 갑과 을: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의 도(道)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가르침이다. 수도(修道)하는 사람은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지켜야 한다.

을: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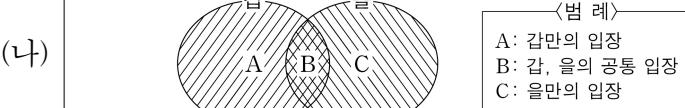
- ㄱ. 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천주(天主)를 모시고 있다.
- ㄴ. 갑: 개벽(開闢)을 앞당기려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 ㄷ. 을: 생활 속에서 평등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인간 존중의 윤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법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 ㄱ. A: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 ㄴ. B: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 ㄷ. B: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 ㄹ. C: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귀한 손님이 대문 앞에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는 예(禮)라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시비(是非)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그 부당하다고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지(智)라 할 수 없다.

- ① 영지(靈知)의 기호(嗜好)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 부여된 본성이다.
- ② 인간의 본성을 이치가 아닌 기호(嗜好)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 ③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교정하여 의(義)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실천하여 선천적인 성(性)으로서의 예(禮)와 지(智)를 회복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행의 공적은 그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없다.

7.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제도[政]로 인도하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을: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병: 예의(禮義)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는 본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며,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떠는 길이며,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 ① 갑: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을: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社稷)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③ 병: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려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 ⑤ 을과 병: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사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는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치고[先悟] 뒤에 닦아 나아갔고 [後修], 그 다음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證].
-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망념(妄念)은 본래 없고 심성(心性)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돈오했기 때문에, 악을 끊어 끊었다는 생각이 없고 선을 닦되 선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으니, 이러한 닦음이 참다운 닦음[眞修]이다.

- ① 마음의 본체가 정(定)이고 마음의 작용이 혜(慧)이다.
- ②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돈오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 ③ 참다운 닦음이 되기 위해서는 돈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돈오 이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⑤ 돈오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치는 것이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을: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에이고 또 노에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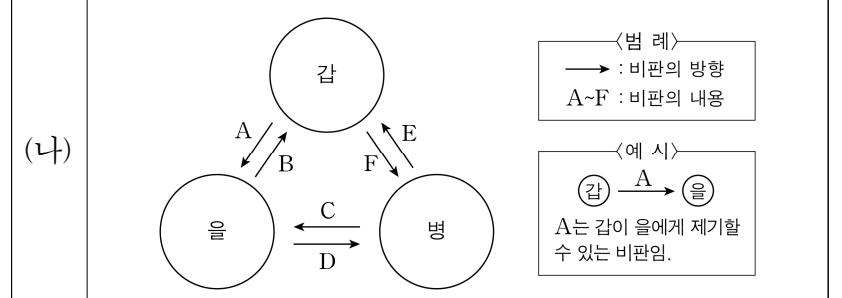
<보기>

- ㄱ. 갑: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ㄴ. 을: 사회적 시인(是認)의 감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에 근거한다.
 ㄷ. 을: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단독으로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유발한다.
 ㄹ. 갑과 을: 덕과 악덕의 구별은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p> <p>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p> <p>병: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p>
-----	--



- ① A: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불법은 공통 권리가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④ E: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제기가 됨을 간과한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박힌 일차적인 좋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뎌낼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이 뒤따를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 ㄱ.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이다.
- 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 ㄷ.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 해야 한다.
- ㄹ. 어떤 것이 좋은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칠정과 사단을 이(理)와 기(氣)에 대응시키면 칠정과 기(氣)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칠정과 사단은 발현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명칭에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p> <p>을: 사단을 칠정에 대응시키면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니,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Gip[갑의 입장] C -- 예 --> Eul[을의 입장] </pre> <p>〈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 ㄱ. A: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에서 발현한 정(情)인가?
- ㄴ. A: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 ㄷ. B: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端]로 볼 수 있는가?
- ㄹ. C: 이와 기는 각각 주체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 ③ 을: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 ④ 을: 쾌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가 있다.
- ⑤ 갑과 을: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행위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한 만큼만을 행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을: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단지 가설로서만 여겨져야 한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목적은 성장한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 ① 갑: 삼단 논법이 아니라 참된 귀납법으로 자연을 탐구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 ③ 을: 이론은 문제 해결 도구로서 유용할 때 가치를 지닌다.
- ④ 을: 한 번 문제를 해결한 가설은 문제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참된 가치를 지닌다.
- ⑤ 갑과 을: 기존 이론에 안주하지 않고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비구들이여, 괴로움[苦] · 괴로움의 원인[集] · 괴로움의 소멸[滅] ·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있느니라.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과거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사유하라. 그러면 그때 지혜[慧], 밝음[明], 깨달음[覺]이 생길 것이다.

<보기>

- ㄱ. 무명(無明)이 소멸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ㄴ. 색(色)은 무상하지만 행(行)과 식(識)은 항상 불변한다.
- ㄷ.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ㄹ.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진·치(貪瞋癡)를 없애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세상에서 최악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고 친절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또한 노예이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노예조차 자유를 누리지 못하므로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을: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의 영역을 구획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 ① 갑: 간섭이 없는 지배는 시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② 갑: 합당한 법의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막지 않는다.
 ③ 을: ‘~을 향한 자유’의 실현 노력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④ 을: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은 항상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킨다.
 ⑤ 갑과 을: 자유의 실현을 위해 자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18.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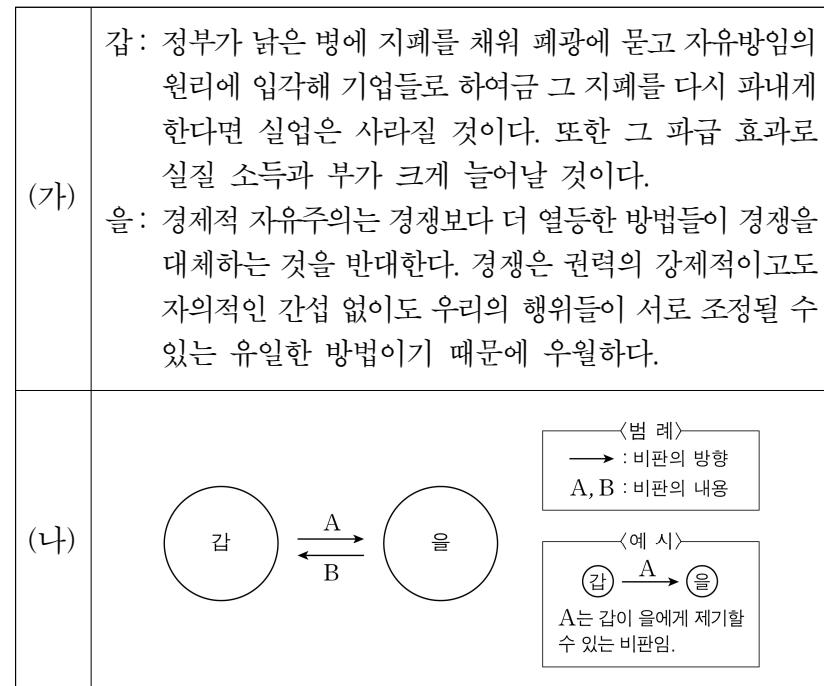
갑: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추론한다.

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이나 감각 활동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일 것이다.

병: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 ① 갑: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은 없다.
 ② 을: 행복해지기 위해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병: 신은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⑤ 을과 병: 궁극적으로 좋은 삶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A: 자유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③ A: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법에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돋는 기능이 있음을 간과한다.
 ⑤ B: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역할은 경쟁의 유익한 작동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나) 사려 깊은 선호란 시민들이 성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과 자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대변시켜 변화시킨 결과물로서의 선호를 뜻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공적인 대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사려 깊음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가): 민주주의에서 엘리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대중의 의견을 대표하므로 충동적이지 않다.
 ② (가): 민주주의에서 통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국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나): 민주주의에서 정책 심의는 선출된 권력의 독점 영역이다.
 ④ (나): 민주주의에서 공공선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총합이다.
 ⑤ (가)와 (나):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엘리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